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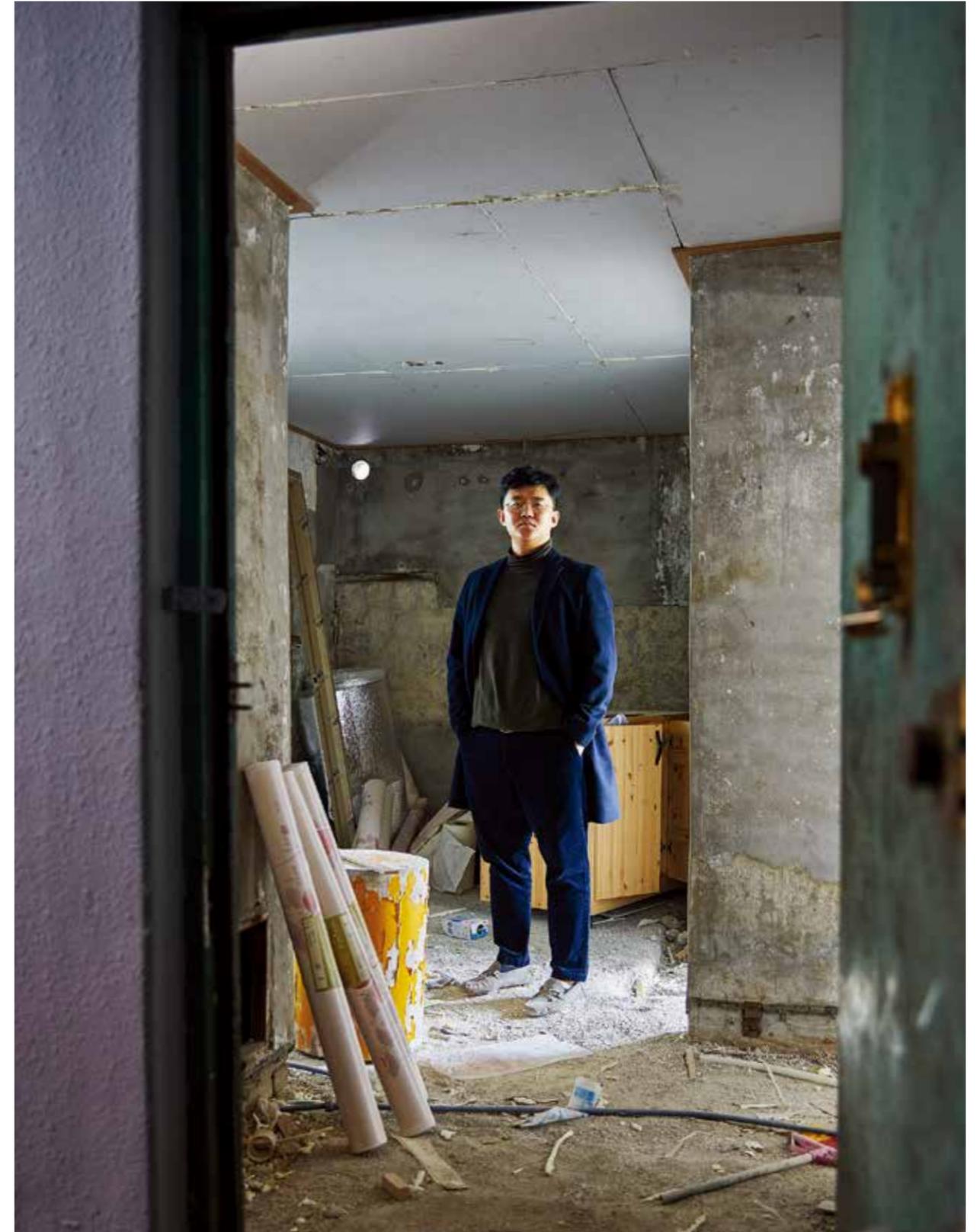
‘인천 2030 미래 이음’ 비전

20
30

먼저 준비하는 인천
10년 후, 확실한 미래

세계와 이어진 기분이 튼튼한 도시,
환경과 미래가 이어진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잇는 경제 도시.

시민을 위한 행복 시정은
이 순간에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은기로 채움, 미추홀구 빈집에서
최환 빈집은행 대표
표지 사진 류창현



‘코레아노’ 한국인의 또 다른 이름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 일본 배 ‘겐카이마루玄海丸’가 닻을 올렸다. 그 안엔 한인 121명이 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첫 공식 이민이었다. 그들 중 102명이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갤릭호S.S. Gaelic’에 올라 하와이로 갔다. 그리고 1905년 4월 제물포항, 1,033명이 멕시코로 향했다. 1921년 일부는 쿠바로 다시 이민을 가 ‘코레아노Coreano’가 됐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현실. 피약벌이 내리쬐는 사탕수수 농장과 에네켄 가시밭에서 뼈끝 녹아드는 고통이 전부였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버틴 시간은 평생이 됐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꿈은 고국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됐다. 이민자들은 피땀으로 번 돈을 대일 항쟁기 독립운동에 보태며, 고국을 위하고 그리워했다.

아메리카에서 멕시코 쿠바까지,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온 세월. 고향 땅을 옮기진 못 해도 마음엔 늘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갔다. 코레아노, 그들은 ‘한국인’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한국 이민사가 시작된 제물포항의 옛 모습이다(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촬영 연도 미정).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며 눈물 흘리던 바다엔 오늘, 꿈과 희망을 실은 배가 오간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민자들의 삶을 담은 기획전 ‘에네켄에 담은 염원, 코레아노의 꿈’을 내년 2월 16일까지 연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외	32 시민 시장 신입사원 이승원	50 드로잉 인천 북성포구 - 고제민 작가
06 화보 ‘오래된 미래’	34 내가 사랑하는 인천 시인문인화가 김학균	52 인포 박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외
08 아듀 2019 2019년 돌아보기	36 소통 인천 인천사진관, 그 후	55 독자 설문
10 인천의 맛 ④강화 순무	38 문화 캘린더 제25회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외	56 2019년 <굿모닝인천>이 걸어온 길
16 연말 나들이 인천의 탈것	40 연말 공연 아트센터 인천	58 인천의 아침 인천과 하와이
20 연말 여행 한겨울 온수풀	42 이미지 뉴스 ‘인천 2030 미래 이름’ 비전	59 인천사진관 이철성 독자님 가족
24 사람과 공간 ⑫ 빈집은행, 청년들	44 시정 뉴스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성료 외	
28 인천권역외상센터 닥터카	48 의회 뉴스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 외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a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으로 특별했던 2019년

글 이순희 계양구 봉오대로



벌써 12월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상투적인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진짜 인천, 진솔한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굿모닝인천> 역시 한 해를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마지막 <굿모닝인천>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내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굿모닝인천>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얻었습니다. 독자에서 ‘참여’가 된 가슴 벅찬 경험 때문입니다. 2019년 8월호에 소개된 해양 레저 체험 ‘왕산마리나’ 편을 기억하시나요? 요트 계류장으로 운영되던 왕산마리나가 요트 대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나섰습니다.

마침 가족과 함께 왕산마리나를 찾았던 저는 취재팀과 함께 사진 촬영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한때가 지면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제겐 그야말로 신기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올해 <굿모닝인천>이 예년과 달라진 점을 꼽자면, 넓어진 ‘독자 참여의 폭’이 아닐까 합니다. 매월 엽서를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독자들에게 가족사진이라는 감동적인 선물을 선사하는 동시에, 동네 사진관을 응원했던 ‘인천사진관’ 코너에서는 시민을 대하는 <굿모닝인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굿모닝인천>을 지켜보는 일은 독자들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준 <굿모닝인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굿모닝인천>을 통해 추억과 정보를 쌓는 독자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원

인천앓들이 새로 생겨 시청 주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벽을 없애고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우리 시의 방향성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정원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시민 역시 성숙한 의식으로 인천앓들을 함께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박희재 부평구 부개로

새내기 인천 시민을 위한 필독서

인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알찬 소식이 담긴 <굿모닝인천>을 다달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임에도 잘 알지 못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인천에 새롭게 동지를 튼 새내기 시민들에게 도시의 정체성을 전파하거나 정착을 돕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식 남동구 용천로

진짜 인천을 배웁니다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벌써 10년 넘게 인천에서 살아가며 제2의 고향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굿모닝인천>을 볼 때면 애乡심이 더 깊어집니다. 미처 알지 못한 도시의 역사, 그 역사 속에 깊이 자리한 소중한 가치들을 곱씹다 보면, 인천이란 도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달 한 달, <굿모닝인천>을 통해 진짜 인천을 배웁니다.

김성진 연수구 원인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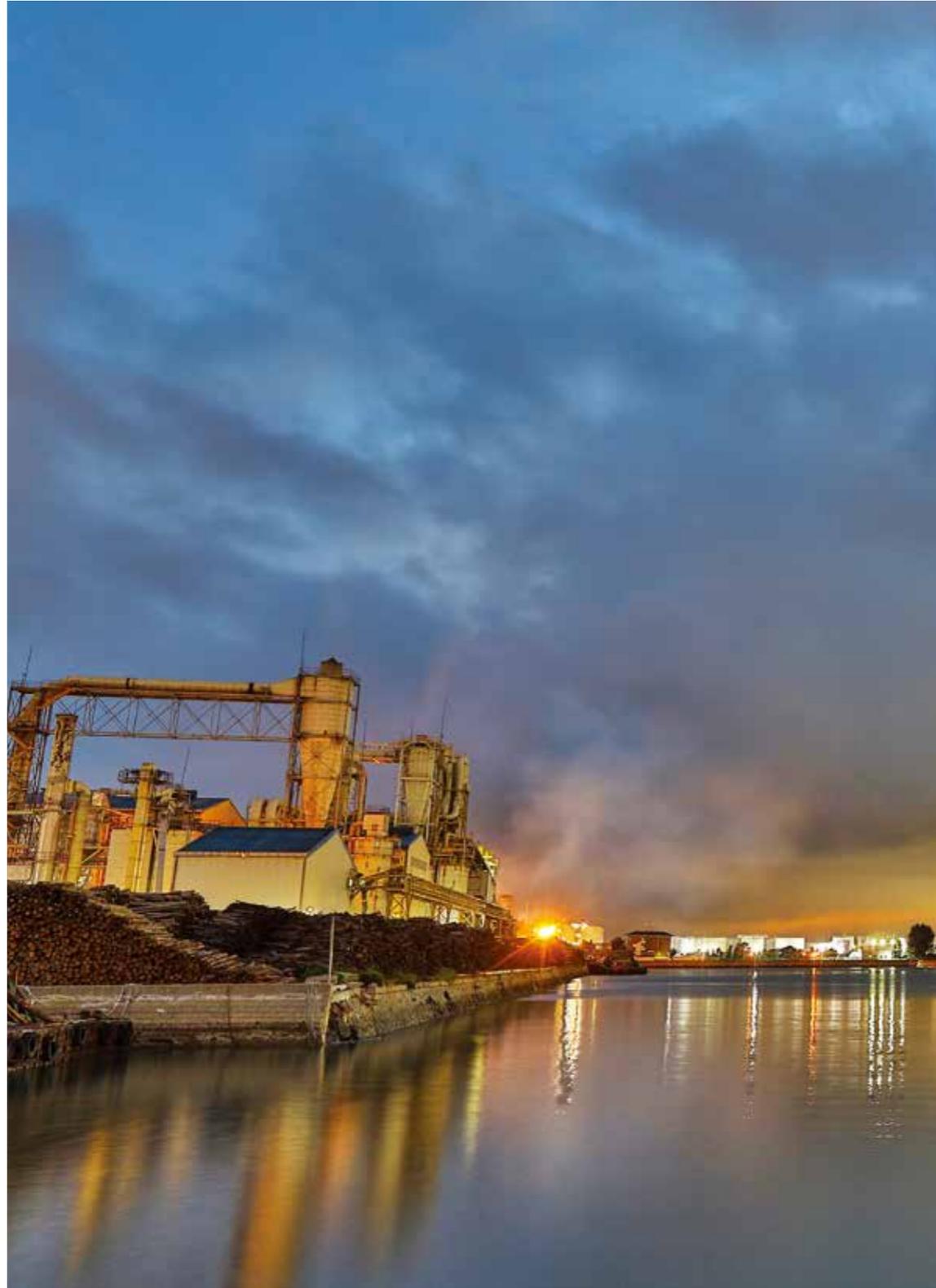
아련한 추억 속으로의 여행

인천을 대표하고 서민을 대표하는 음식 ‘닭알탕’ 기사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중학교 시절, 닭알탕 거리 맞은편 현대시장을 가로질러 통학했습니다. 어릴 적 매일 보던 풍경을 수십 년이 지난 후 지면으로 만나니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인천을 떠나 있지만, 언젠가 꼭 한번 그곳을 다시 찾아 추억과 재회해야겠습니다.

강현숙 경기도 시흥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OLD BUT NEW



북성포구에 비친 역사.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시간의 깊이를 간직한 것과 단순히 낡고 허물어진 것은 다르다. ‘오래된 것’은 처음 ‘새것’이었다. 오늘 눈 앞에 펼쳐진 인천의 모습은 미래의 과거다. 바로 이 순간, 내일을 위한 이야기는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은 시간대에 공존하는 도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바로 인천이다.

G-타워에 비친 미래.



共存

내일이 더 빛날 인천

adieu 2019

12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달려왔던 1년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시는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문화 사업을 추진했다. 심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본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01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경기 부천~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08km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 경기도 마석까지 50분 만에 갈 수 있다. 시는 내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1년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2년 말 착공해 2026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02

‘배다리 지하철도’ 민관 전격 합의



© 사진 류창현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중구 신흥동~동구 송현동’ 연결 도로가 7차에 걸친 협의와 주민대책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사를 시작하는 데 뜻이 모아졌다. 시는 매연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설계하고, 지하철도로 만들되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03

‘인천앓뜰’ 시민 품으로



우리 시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이 우선인 시정, 사람 중심의 인천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담아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인천앓(애)뜰’로 새롭게 바꾸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앓뜰’을 시민들을 위한 소통·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04

군부대 유휴 부지 시민 품으로

부평 3보급단 도심 외곽 이전 등 부대 재배치로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시와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부대 이전에 따라 약 120만㎡ 유휴 부지에 공원 및 문화 공간 등 시민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05

월미바다열차 개통

우리 시는 지난 10월 8일 월미도를 일주하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시작했다. 경인선·수인선 종착역인 인천역을 출발해 월미바다역, 월미공원역, 월미문화의거리역, 박물관역 등 4개 역 6.1km 구간을 운행하는 월미바다열차는 개통 한 달 만에 총 3만7,365명, 하루 평균 1,437명이 이용할 만큼 인천의 명물이 됐다.



06

해안 철책선 철거, 해양친수 공간 조성

우리 시는 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인천 지역 해안가를 둘러싼 군부대 철책선 철거를 시작했다. 시는 내년까지 49.8km 철책을 걷어내고 해안산책로와 쉼터 등 시민들을 위한 해양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07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 합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소통을 통한 민관 합의로 해결됐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주)회의)’를 열어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08

서해 5도 야간 조업, 55년 만에 부활

서해 5도 어장 면적이 지난 4월, 1,614km²에서 245km² 늘어난 1,859km²로 확장됐다. 이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의 약 84배에 달하는 크기다. 또 남북 군사 대립으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됐다.



09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닻 올려



우리 시는 지난 4월 26일 국내 크루즈터미널 가운데 가장 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개장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연면적 7,364㎡, 안벽 길이 430m로, 9,00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000t급 초대형·초호화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10

송도 워터프런트, 청라시티타워 착공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과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4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첫 단계로 1-1 공구(1km)를 착공했으며, 호수와 수로를 ‘ㄱ’자 형태로 연결하는 두 번째 구간 공사는 오는 2021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11월 21일에는 우리 시 숙원 사업이었던 높이 448m의 청라시티타워 착공식을 진행했다.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딱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네 번째는 수더분한 강화 땅에서 캔 특 쏘는 맛 ‘강화 순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인천의 맛

땅에서 캔
알싸함
강화
순무

팽이 모양의 동그란 가을 순무(가운데)와 길쭉한 겨울 순무(양옆)



민통선 마을 밭에 가득 쌓인 ‘평화의 열매’.



민통선 마을, 순무 밭

강화 북쪽으로 가는 길, 바다는 질펀한 갯벌을 드러낸 채 철책을 두르고 저 멀리 물러나 있었다. 강화읍 율곡리는 민통선 마을이다. 북한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흐르는 임진강과 한강이 한데 어우러져 다시 서해와 염하(鹽河)로 흘러들어간다. 고려 시대 정자 ‘연미정(燕尾亭,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에 오르면 바다 너머로 북녘땅 황해도 개풍군이 가까이 보인다. 두 갈래로 나뉜 물길, 두 동강이 난 땅에서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느낀다.

마을로 가는 길목,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해 긴장감이 흐른다. 이 일대는 도로가 나기 전 논과 밭, 습지가 전부였다. 오래도록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던, 순수하고 은밀한 땅. 그 안에서 희망의 씨를 뿌리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연미농장’의 황우석(50) 대표는 14년 전, 서울에서 고향으로 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장무공(莊武公) 황형(黃衡) 장군의 후손이다. 황형은 조선 시대 삼포왜란(三浦倭亂)을 승리로 이끌어 임금에게 연미정과 그 일대 땅을 하사받았다. 그 후손들은 선열이 목숨 걸고 지킨 땅을 일구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창원 황 씨 사람들이 농사지으며 오בות이 살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다 인삼밭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보내셨지요.” 부뚜막만 아니면 온 땅에 인삼을 키웠다는 강화. 율곡리에선 현재 인삼보다 순무를 주로 키운다. 식재료로 경쟁력이 높고, 지리적 환경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비가 적절히 내려서 뿌리 작물인 순무를 재배하기 좋아요. 바다와 오염되지 않은 비무장 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맛을 무르익게 하지요.”





연미농장의 황우석 대표.
김장철을 앞두고, 쑥쑥 자라난 순무를 캐느라
농사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강화풍물시장 풍경.



“올해는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늘의 뜻이라면서도, 그는 “농사꾼에게 농사일은 ‘업’이라, 목숨을 건다”고 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이느냐에 따라, 자연은 더 깊고 오묘한 맛을 주고, 결실을 허락한다.

땅에서 정해진 운명

가을의 끝자락, 기온이 하루아침에 푹 떨어졌다. 찬바람이 불고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순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만9,834m²(6,000평)에 이르는 넓디넓은 밭. 쑥쑥 자라난 순무를 캐느라 할머니 일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몇 시간이고 허리를 숙여 순무를 뽑아내는 고된 일이다. 더구나 알이 실한 놈들만 골라내야 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평생을 밭에서 보내온 베테랑 농사꾼들이 아니던가. 그들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늦여름부터 하늘과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순무가 의기양양하게 자태를 드러낸다.

올해 수확량은 예전만 못하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후로 장대비가 내리면서 땅이 단단해져 작물이 뿌리내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도 먹고살 만큼은 열매가 맺혔다. “항상 일기예보를 주의해서 들어요. 언제 어느 날씨에 씨를 뿌리고 거두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정해지지요. 농사는 하늘의 영역이예요.” 처음 농사일에 손을 댔을 땐, 쫄딱 망하고 몇 년을 밭에서 눈물지었다. 평생 흠을 만진 아버지의 손길을 이어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전국을 다니며 농사일을 배우고 작물 재배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뿌리 작물은 특히 토양에 민감하다. 땅에서부터 미리 앞날이 정해지고, 햇살과 바람, 빗물을 맞으며 자라난다. 농사꾼은 자연의 순리 안에서 정성과 노력을 더할 뿐이다.



맛의 비밀은 온도

순무는 재배 시기에 따라 봄 순무와 가을 순무로 나뉜다. 가을 순무는 늦여름에 씨를 뿌려 추운 겨울로 들어설 때 거둬들인다. 이때 수확한 순무는 맛이 달고 열매살이 단단하며, 특유의 진한 풍미를 낸다. 비밀은 온도에 있다. 순무는 온도가 낮아지면 추위에 대비해 줄기의 수분을 당으로 바꿔 뿌리로 저장한다. 그래서 여름 문턱과 너무 이른 가을에 수확한 순무는 맛이 맵고 쓰며 몸체가 무르다. 연미농장에서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겨울 순무를 재배한다. 가을에 씨 뿌려 겨울을 난 순무는 성장이 느리지만 당도는 매우 높다. 그 모습도 다르다. 뽕뽕 언 바깥 땅에서 따듯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내리면서, 몸체가 둥근 모양에서 길쭉하게 변하는 것. “고유한 형태를 바꾸면서까지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북쪽 끝자락, 민통선 마을의 겨울은 빠르게 찾아온다. 영하 5도. 추위에 강한 순무라지만 최대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온도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큰 한파가 없어서 무사히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는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늘의 뜻이라면서도, 그는 “농사꾼에게 농사일은 ‘업’이라, 목숨을 건다”고 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이느냐에 따라, 자연은 더 깊고 오묘한 맛을 주고, 결실을 허락한다.

가을 순무로 만든 김치와
겨울 순무로 만든 차.



천년을 이어온,
알싸한 맛

“하느님께 맹세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히라는 남북전쟁 중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순무를 뽑아 먹으며 말한다. 곱게 자란 부잣집 아가씨가 전쟁을 겪으며 주체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순무의 원산지는 멀리 유럽 서남부의 해안 지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1236~1251)>에 종자가 약재로 쓰였다고 나와 있으며, 강화도에서는 1,000년 전부터 길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종 품종은 백색, 자색, 적색을 띠는데 주로 자색이 많다. 그냥 먹거나 김치, 장아찌 등 각종 요리로 만들어 먹는다.

순무 잎은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높으며, 뿌리에는 트립토판과 리신이 풍부하다. 한방에서는 순무가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기(氣)를 보해준다고 한다. 조선 시대 <동의보감>에는 ‘봄에는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 가을에는 줄기를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는 순무는 황달을 치료하고, 오장에 이로우며, 순무 씨를 아홉 번 찌고 말려서 오래 먹으면 장생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화군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순무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며 순무의 생산성을 높여왔다. 올해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으로 순무 육종에 적합한 온실을 추가로 갖추고, 내년까지 5개의 품종을 등록할 계획이다.

연미농장 www.yeunmi.com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36번길 48-17 ☎ 010-9495-9129
강화풍물시장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 032-934-1318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032-930-4137



순무 이렇게 먹어요!

순무는 적당한 크기에 목직하고, 잎이 푸르고 싱싱하며, 뿌리 부분에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특히 늦가을에 수확한 순무는 한 알 한 알 양분이 짙게 들어져 조직감이 단단하다. 본재료가 좋으니 이때 순무김치는 누가 담가도 맛있다. 순무는 수분이 적어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김치를 담가야 한다. 당도 높은 겨울 순무는, 무말랭이로 만들면 그냥 먹어도 감칠맛이 돈다. 차로 우려거나 밥을 지어 먹으면, 더 깊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순무 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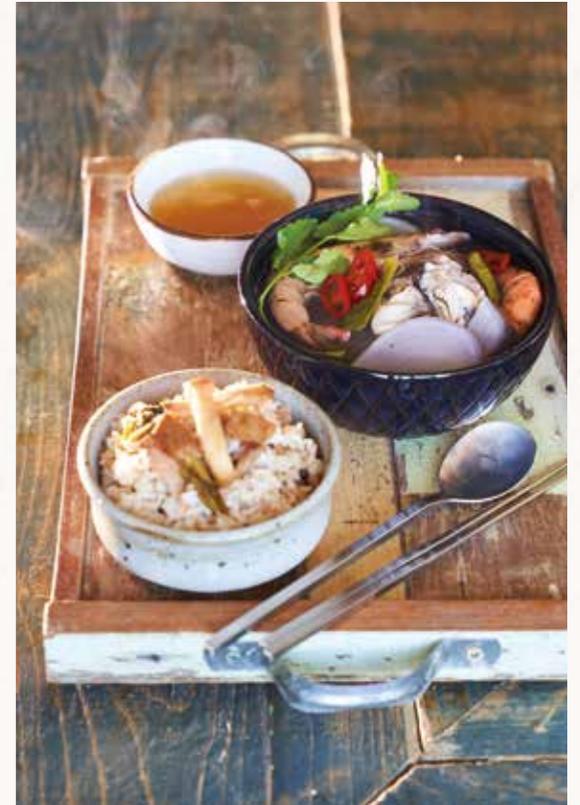
한겨울,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몸의 기운을 추스르자. 통통하고 차진 굴과 순무를 넣고 국을 끓여 바다와 땅의 기운을 한 그릇에 담았다. 찬 기운을 몰아내고 마음속까지 온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재료

순무 1개, 굴 1봉, 새우 3마리, 마른 표고버섯 3개, 멸치 50g, 다시마 1조각, 생표고버섯 3개, 홍고추 1개, 대파 1뿌리, 액젓 약간
양념(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들기

- 1 — 물 1ℓ에 마른 표고버섯, 팬에 구운 멸치, 다시마를 넣고 끓여 육수를 낸다.
- 2 — 생표고버섯은 얇게 채 썰고 순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3 — 홍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빼고 속을 긁어낸 다음 5cm 길이로 채 썬다.
- 4 —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갈라 4cm 길이로 자른다.
- 5 —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굴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는다.
- 6 — 육수를 곱게 걸러 끓이다가 대파와 생표고버섯, 순무를 넣는다.
- 7 — 순무가 익으면 새우와 굴을 넣어 살짝 익히고 홍고추를 넣는다.
- 8 — 양념을 넣고 액젓으로 간한다.



순무 펜넬 샐러드

적자색 열매를 자르면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 순무. 흔히 김치나 장아찌로 해 먹는데, 무처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 좋다. 달콤 쌉싸름한 펜넬과 알싸한 순무를 버무려 샐러드를 완성했다. 겨우내 무뎠던 입맛이 확 되살아난다.



재료

순무 1개, 펜넬 1개, 연근 1/20개, 라임 3조각, 로즈메리, 애플민트, 오일, 소금, 후춧가루
반죽옷(밀가루 1/2컵, 물 1/2컵, 집간장 1작은술)
양념장(고춧가루 1/2큰술, 집간장 1과 1/2큰술, 들기름 1큰술)

만들기

- 1 — 순무, 펜넬, 연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2 — 양념장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 3 — 밀가루를 체에 내려 물과 집간장을 넣고 섞어 반죽옷을 만든다.
- 4 — 연근과 순무에 반죽옷을 가볍게 입혀준다.
- 5 — 달군 팬에 오일을 두르고 채소들을 노릇노릇 굽는다.
- 6 —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 7 — 접시에 담고 라임을 얹어 로즈메리와 애플민트로 장식한다.



요즘 인천,
‘이건 꼭 타야 해!’

걸어야 제격인 여행이 있고, 타야 더 즐거운 여행이 있다. 차디찬 공기 사이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불지만 어따라. ‘이냉치냉以冷治冷’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거늘. 때론 안에서 아늑하게 때론 밖에서 과감하게, 탈것에 몸을 맡기면 이 겨울이 즐겁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류창현

하늘길 탈것

공항 자기부상열차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하늘 아래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달린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2005년 개통한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다.

2016년 2월, 개통 초기만 해도 하루 평균 2,500여 명에 머물렀던 승객이 올해 약 4,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영종국제도시와 무의도 사이에 다리가 난 것이 효자 노릇을 했다. 열차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장기주차장역~합동청사역~파라다이스시티역~위터파크역~용유역 구간의 6.1km를 운행한다.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103회를 달린다. 자기부상열차는 이름 그대로 자기력으로 움직인다. 선로 위로 8mm를 떠서 가는 방식이다. 열차와 선로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도 좋다. 일반 열차와 달리 분진이 날리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2층(출발역 기준)
이용 매일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30분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에서
매시 00, 15, 30, 45분 출발
- 용유역에서 매시 01, 16, 31, 46분 출발
문의 032-741-2254~5

바다결 탈것

월미바다열차

애물단지라니, 보물단지도 이런 보물단지가 없다.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 지난 10월 8일 정식 개통한 이래 전국구 ‘인싸’로 등극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개통 한 달 만에 총 3만7,365명, 하루 평균 1,437명이 이 열차에 몸을 싣고 월미도를 누볐다. 승객들은 1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조차 마다치 않았다. 인천교통공사는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대합실을 약 90명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향후 대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200명까지 수용할 예정이라니, 기다림마저 즐겁다.

열차는 월미바다역~월미공원역~월미문화의거리역~박물관역에 이르는 6.1km 구간을 14.4km/h 속도로 운행한다. 한 바퀴를 도는 데 약 35분이 걸리고 운행 간격은 10~15분. 무인 자동 방식이라 소음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다. 냉난방 시설도 잘 갖추어 계절을 가리지도 않는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 선로 결빙 예방과 해빙, 시설물 동파 방지 등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위치 중구 월미로 482
이용 겨울철(11~3월)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정기 휴일)
문의 032-450-7660



짜릿한 탈것

강화 루지

저 멀리 통영이나 여수에서 ‘루지(Luge)’를 타고 왔다는 자랑이 부럽던 때가 있었다. 이젠 그 짜릿한 즐거움을 찾아 인천으로 발걸음이 이어진다. 지난해 6월, 강화도에 루지를 탈 수 있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그것도 1.8km 트랙에 2개 라인을 갖춘 동양 최대 규모로.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땅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트랙을 내려오는 다이내믹한 레포츠. 방향 조종과 제동이 비교적 간단해 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그렇다고 만만하게만 봐선 안 된다. 경사는 완만해도 반복되는 곡선 코스와 360도 회전 코스 등 속도와 스릴을 느끼는 구간이 제법 있기 때문. 그 아찔함에 한겨울 추위쯤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탁월한 조망은 덤이다. 루지를 타기 위해 곤돌라에 몸을 싣고 정상에 오르면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드넓은 서해를 한아름 품을 수 있다.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이색적인 회전 레스토랑도 빼놓을 수 없다. 짜릿하게 속도감을 즐기다 분위기 있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연말 여행으로 딱 좋다.

위치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23-3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내
 이용 겨울철(11~2월)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32-930-9000



위치 중구 구읍로 75 씨사이드파크 내
 이용 동절기(11~2월)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032-719-7778



낭만적인 탈것

영종 레일바이크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를 넘어 신나게 달린다. 어느덧 다리의 끝자락, 뽕족하게 솟은 인천대교 기념관을 지나 해안을 따라 ‘씨사이드파크’가 길게 이어진다. 영종하늘도시 남쪽 해안도로 일대 177만㎡ 부지에 7.8km 길이로 조성된 대규모 해안 공원이다. 그 면적이 서울 여의도에 비견될 만큼 어마어마하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씨사이드파크를 전국적인 명소로 만든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레일바이크. 우리나라 레일바이크 코스 가운데 바다와 가장 가깝고 유일하게 낙조를 볼 수 있다. 해안을 따라 쪽 뺨은 왕복 5.6km의 길은 인공 폭포와 수목 터널, 디지털 트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지루할 틈이 없다. 겨울 추위 걱정엔 망설일 수도 있지만 속도가 느려 괜찮다. 설사 조금 춥더라도, 탁 트인 서해와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실루엣을 감상하면 ‘추위’는 ‘추억’이 된다. 인근 영종역사관을 방문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자.



HEATED POOL
01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수영장

넓직한 실내 수영장이 통째로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TV나 책을 보다가 아니면 휴식을 취하다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바로 객실 안의 따뜻한 온수풀에 뛰어들어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면 된다.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통유리를 통해 아침에는 일출을, 밤에는 밤바다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영흥도에 위치한 '미스터와이'는 인피니티 풀장 외에도 키즈 룸부터 커플 룸, 개인 풀장을 보유하고 있는 풀빌라까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객실 안에서 프라이빗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키즈 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2층 침대와 해먹, 미끄럼틀, 다양한 놀이용품 외에도 아기 식판, 젓병 소독기, 분유 포트 등 아이와 관련된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모든 객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일부 객실에는 피로를 풀어줄 스파도 보유하고 있다.

미스터와이

투숙객에게는 과일과 빵, 쿠키, 요거트, 주스 등을 담은 웰컴 조식이 제공되며, 전 객실에서 개별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위치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9번길 221-644 문의 ☎ 010-6433-5146

HEATED POOL

겨울엔
온수풀로
'감성 여행'
떠나요

찬바람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집 안에만 있기에는 겨울이 너무 길다. 겨울의 맛을 즐기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온수풀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 찬 공기를 걷어내고 따뜻한 물에 온몸을 담그는 순간, 피로가 풀리면서 스트레스도 걱정도 말끔히 사라진다. 자연 속에서 온수풀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찾아 나섰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HEATED POOL
02

그림 같은
바다 보며 즐기는
자쿠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마을의 끝자락에서 맛दार된 넓은 바다, 그 바다를 가득 품고 있는 펜션 '하와이비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정성스럽게 가꾼 아담한 정원과 감성 가득한 캠핑용품, 그리고 바다와 나란히 위치한 수영장, 보기만 해도 차가운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릴 듯한 자쿠지까지... 해안선을 바라보며 자쿠지의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면 잡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마치 조용한 별장에 놀러 온 느낌이다.





15년 전 부모님이 지은 펜션을 뼈대만 남기고 모두 고쳐 2년 전에 재오픈했다는 주유탉(37) 씨는 미술 전공 실력을 발휘해 펜션 구석구석을 모두 직접 디자인하고 꾸며냈다. 과거를 담은 조명, 천연 원목과 오일을 아끼지 않은 수제 가구, 용접까지 하면서 만든 글램핑 시설, 멋스러운 자쿠지 등 직접 고르고 나르고 디자인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낸 덕분에 마치 펜션이 하나의 예술품 같다. 객실의 통유리를 통해서도 잘 가꾸어진 정원과 바다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다. 모던한 내부 인테리어도 그만인 곳. 덕분에 TV 프로그램에서 촬영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와이비치

복층으로 된 일부 객실은 창문이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 색다른 느낌. 입실 시 수제 파이와 쿠키, 누룽지, 더치커피 등을 담은 웰컴 기프트 박스가 제공된다.
 위치 옹진군 영흥면 영흥서로446번길 36
 문의 ① 032-886-9300, 010-4355-3337

HEATED POOL
03

온수풀 수영에
공방 체험까지 가능

커다란 온수풀은 기본, 각종 장난감과 욕아용품이 있어 키즈 카페 부럽지 않다. 강화도 동막리에 위치한 아셀펜션은 ‘키즈 펜션’으로 불릴 만큼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펜션이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위주의 펜션을 구상하게 됐다는 주인장 박광원(45) 씨는 객실 안에 범보 의자, 미끄럼틀, 놀이집, 바운서 등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널찍하고 낮은 침대를 배치했다. 특히 객실마다 스위밍 스파, 윌풀 스파가 비치되어 아이가 물놀이 할 때 부모가 함께 스파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실외 놀이터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 아이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비즈양초, 드림캐처, 드라이플라워, 강화인삼 가드닝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방 체험이 가능하다. 바비큐 시설은 객실 안에 구비되어 있고, 바비큐 메뉴도 준비되어 재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편리하게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아셀펜션

물놀이 후 수영복 세탁이 가능하도록 객실 안에는 세탁기와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빔 프로젝트가 있어 영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위치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638-1
 문의 ① 032-934-9101, 010-3770-1771

HEATED POOL
04

워터 슬라이드 갖춘
온수풀의 원조

온수풀 하면 단연 손꼽히는 곳, ‘태양의 해변’이다. 2010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강화도의 인기 온수 펜션으로 커플 여행객에도, 가족 단위 여행객에도 인기가 많다.
 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야외 수영장 외에 미니 슬라이드를 갖춘 돔형식의 온수 수영장과 스파 수영장을 갖춰 추위에도 끄떡없이 신나게 즐길 수 있다. 야외에 작게나마 사우나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쌀쌀한 요즘 같은 날씨에 이용하기 딱 좋다. 특히 각 룸별로 모두 스파 공간이 마련되어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창밖으로 멀리 석모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진다. 이곳의 핵심은 야외 테라스인데, 전 객실이 오션뷰를 배경으로 이국적으로 잘 꾸며져 있어 사진 찍기에도, 바비큐를 즐기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태양의 해변

펜션 바로 앞에 석모도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선착장이 자리해 강화도 여행과 함께 석모도 여행도 가능하다.
 위치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3-1
 문의 ① 010-3000-0601



욕심으로 '빈 집', 열정으로 채우다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이번 호에는 원도심 빈집에 새 숨을 불어넣는 최환 '빈집은행' 대표를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집수리 시범용 빈집이 있는 빌라 앞에서, 최환 빈집은행 대표.



빈집은행에서 집수리 시범용으로 쓰는 미추홀구의 빈집.

난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누군가는 쓰지 않고 버려두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집주인들을 수소문했다. '버린 것을 고쳐서 쓰다 돌려주겠다'고 결심했다.

빈집에,

다시 온기를

미추홀구 용현동, 좁다란 골목 사이로 작은 집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을 지척에 두고 마치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하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주민들 사이에 마을이 헐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에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았다. 비가 새면 새는 대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됐다.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집만 덩그러니 남았다. 동네가 순식간에 늙어갔다.

“난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누군가는 쓰지 않고 버려두었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집주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최환(34) '빈집은행' 대표는 폐현수막으로 구두와 옷을 만들던 업사이클(Upcycle) 디자이너였다. 지금은 버려진 집을 매만지며 새 숨을 불어넣고 있다. 어느 동네, 어느 집이든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는 떠나게 마련이다. 그 빈자리가 시간의 연속성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낡고 오래된 동네 사이사이에 자리한 빈집. 철근과 콘크리트가 황량하게 드러난 공간 안팎으로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군다.

“빈집이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우며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졌지요. 더구나 빈집은 대부분 인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버려둔 것이다. 그렇게 온기 잃은 집들이 하나둘 흉물로 전락해 갔다. 빈집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살던 집에서 잘살 수 있기를 바랐다. '버린 것을 고쳐서 쓰다 돌려주겠다'고 결심했다.



꿈을 짓고,

열정을

세우다



시제품을 개발하는 '메이커스 스페이스'에서 내일을 그리는 청년들.(왼쪽)

빈집의 활용방안 중 하나인, 스마트 버섯 농장.(오른쪽)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모여 사는 동네에 젊은 활기가 돈다. 지난 5월 27일, 용현 1·4동 주민센터 옛 건물에 '빈집은행'이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미추홀구가 선정됨에 따라 옛 집들의 새단장에 나설 수 있었다. 청년들은 스스로 건축 관련 자격증을 따내고 공구를 손에 쥐었다. '탕탕탕' 마을 곳곳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어 있던 집이 하나둘 새 숨을 텃다. 빛바랜 동네가 제 빛을 찾고 윤기를 더해갔다.

정상섭(31) 씨는 빈집은행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대를 나온 그는 한때 빈집을 화폭에 담았다. '나는 왜 집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사라져가는 도시 공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림으로 답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자. 붓을 내려놓는 대신 공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3년, 모르는 공정은 배워가며 300채 넘게 집을 고쳐왔다. 주민들이 '집을 잘 가꿔줘서 고맙다'며 두 손을 감싸면 그 따스함이 마음으로 스며들었다.

청년들이 수리한 빈집은 그들이 일하거나, 먹고사는 공간으로 쓰인다. 벌써 4채를 고쳐서 빌려 쓰다 돌려주었다. 사람들이 머물기 꺼리는 오래된 반지하 집에선 버섯을 키운다. 빈집은행이 크고 작게 관여하는 원도심의 버섯 농장은 16곳에 이른다. 빈집은행 한편에 버섯 요리를 선보이고 함께 즐기는 공유 주방도 마련했다.

빈집,

청년에겐 기회

빈집은행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기도 하다. 1층엔 시제품을 개발하는 '메이커스 스페이스'가, 2층엔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며 미래를 그리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지하엔 10개 청년 기업이 모여 서로에게 힘을 북돋우며 성장하고 있다.

빈집은행의 이기영(29) 메이커 매니저는 올해 용현동 사람이 됐다.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마을 주민이 스스럼없이 들어와 감을 따곤 한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람 사는 동네'의 훈훈한 정을 느꼈다. 그는 도시가 잘 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쇠해지지요. 도시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도록 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빈집을 고치는 거였다. 되살아난 집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됐다.

최 대표는 청년이 인천에 머물러야 도시가 산다고 말한다. "인천 청년들이 일거리와 살 곳을 찾아 외지로 떠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 땅에 뿌리내리고 성장해야 도시 경쟁력이 쌓여 '굿모닝 인천'이 되지 않겠어요. 인천에서 '굿모닝에서 굿나이트까지' 쪽 가는 거죠. 그의 얼굴에 '최고의 환한 미소'가 번진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동네 낡은 집에 머물지만, 청년들의 꿈은 신도시처럼 거대하고 번쩍번쩍 빛난다. 어디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젊은 그들에게서 배운다.



전국 최초 빈집 활용 마을 재생

우리 시가 2년간 실시한 빈집 실태 조사를 마치고,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인천에는 현재 빈집 3,976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로 857호에 이르고, 중구 672호, 부평구 661호, 동구 569호, 서구 42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자치구별 정비 계획을 세우고, 2024년까지 164억5,000만 원을 들여 인천 전역의 빈집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시 주거재생과 ① 032-440-3488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왼쪽)
 신고 유형, 사고 유형에 따라
 중증외상이 추측될 때
 닥터카를 출동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김양우 소방위.(아래)



길 위의 응급실 '닥터카' 골든타임 사수한다

우리나라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30.5%. 숨진 10명 중 3명은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만 받았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시간, 골든타임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구급차에 직접 탑승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를 운영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책임지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전문 의료진을 태운 닥터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다급한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된다. 공사장 추락 사고다. 추락 사고 특성상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이 높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소방구급차 출동과 동시에 닥터카 출동을 요청한다. 그 순간, 길병원에 위치한 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운 닥터카가 출발한다.

닥터카는 365일 24시간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에 2교대로 대기하면서 건물을 비롯한 시설 붕괴,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다. 외상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운 닥터카는 5분 안에 출동해 늦어도 30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의료진은 실시간 영상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를 만나자마자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등 의료진 공백 시간을 줄이고 최초 이송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닥터카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 차량.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닥터카를 처음 제안한 인천권역외상센터의 유병철 교수.(위)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면 고마움을 느낀다”는 최윤희 수간호사.(왼쪽)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 인천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면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병원 도착 전에 미리 수술실을 준비시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술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하게 되죠.” 닥터카를 처음 제안한 인천권역외상센터의 유병철(43) 교수는 닥터카가 중증외상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특히, 길병원 내에 있는 인천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직도 외상센터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때문에 유 교수는 닥터카를 매개로 외상센터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는 반드시 환자를 외상센터로 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구급대원들은 그런 매뉴얼에 따라 저희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길병원에 위치해 있는 인천권역외상센터를 모르는 일부 시민 중에는 왜 본인이 자주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와 소방본부, 그리고 다른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천권역외상센터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닥터카로 든든한 의료 안전망 구축

“언제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일 근무 인원 중에서 그날의 닥터카 담당을 배정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근무하다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출동한 사람 뒤편까지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최윤희(43) 수간호사는 외상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한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처치가 들어가야 하는 외상환자를 자주 접해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니 성격이 점점 급해진다는 그녀는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탑승하면 모든 처치가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효과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김양우(44) 소방위는 신고 유형, 사고 유형에 따라 중증외상이 추측될 때 닥터카를 출동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닥터카 의료진에게 지역별 소방구급대원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 이동 중 전화로 계속 통화하곤 하지만 신고 내용, 위치, 신고자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전송되는 소방 MDT 단말기를 닥터카에도 활용한다면 환자의 위치 파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닥터카는 인천 지역의 소방·응급의료기관·지자체가 각각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다. 사람 살리는 일의 작은 첫발이 앞으로 더욱 큰 걸음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닥터카를 운영하는 것은 인천이 전국 최초다. 지난 11월 3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경진대회’에서 닥터카 시스템이 국무총리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응급의료 분야의 선진 사례로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의 닥터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닥터카가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시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닥터카 운영을 기반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022년 2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옵니다”

신입사원 이승원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취업 준비 여부를 떠나 원하는 직장엔 계속 관심을 갖고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직장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
민
시
장
-
이
승
원



졸업 뒤 바로 취직됐다고,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몇 년에 걸쳐 엄청난 준비를 해온지도 모르고 말이다. 내가 취업 시험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낙방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 어쨌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내 신념은 옳았다. “QA(품질보증) 사원입니다. 식약처나 FDA(미국식품의약국)에 대응하며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의 안전을 보증하는 게 제 일이지요.”

이승원(29) 씨가 점안액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삼천당제약(주)에 입사한 건 지난 4월. 앞서 2월 인천대 생명과학부를 졸업했으니 2개월 만에 합격한 셈이다. 사회인으로 7개월여를 지낸 지금 그는 행복하다. 일이 적성에 맞을뿐더러, 회사의 미래가 밝은 눈처럼 선명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일자리 카페 ‘잡스(Job’s)인천’이 큰 도움을 줬어요. 자기소개서 교정도 봐주시고, 영어 면접 준비까지 지원해 주셨거든요.”

잡스인천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종합 일자리 정보 소통 플랫폼이다. 아늑한 카페 같은 공간은 물론이고 취업 상담과 특강까지 무료 제공하며 취업을 도와준다. 승원 씨처럼, 저마다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거쳐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인천시 석남동이 고향으로 초중고와 대학까지 인천에서 졸업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생물’이었다. 대학 전공도 그렇게 선택했다. 군대 의무병 복무 뒤 휴학, 2년간 약대 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였다. “면역 치료제, 항암제 같은 필수 약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약대는 떨어졌지만 제약회사 입성의 꿈은 이뤘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앞으로의 삶에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약대 낙방 뒤 3학년에 복학한 그는 본격적인 취업 공부에 돌입한다. 시간이 될 때마다 잡스인천을 찾아 자소서 쓰기, 면접 스테디를 하고 채용 정보도 얻었다. 번번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제약회사 채용 공고가 뜰 때면 어김없이 지원을 했다. “힘들기보다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직장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시험을 보는 것은 취업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준비가 안 됐다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삼천당제약 합격 통보를 잡스인천에 머물 때 받았을 만큼, 그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시험 준비를 계속해 나갔다.

천진난만했던 승원 씨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젓한 사회인이 된 것처럼, 그는 고향 인천이 자신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 더욱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인천,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청라-송도와 같은 국제도시예, 문화 시설도 많아졌고요.” 작은 집간이라도 스스로 마련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싶다는 승원 씨.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에서 인천의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짠물’로 ‘단물’ 만드는 인천

생선의 맛, 먹는 즐거움
魚味喰樂



小見
문학산의 한 마을



多島樂仁川
섬이 많아서 즐거운 인천



長春仁川
장미! 긴 봄의 인천

글그림 김학균

‘시 속에 그림,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중국 문인 소식(蘇軾)의 말을 좇아 시 쓰며 그림 그리고, 근현대 인천史와 인문학 강의하며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 것은 인천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70여 년 동안 인천에서 먹고살 수 있었던 것은 인천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70년 전 젓 떼자마자 인천으로 온 나는 인천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길렀고 인천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았다. 신포동, 수봉회관, 주안역, 양키시장, 배다리 이런 단어들은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인천 사랑을 위한 알맹이를 말하기 위해 군(軍) 시절을 회상해 본다. 월남 파병 때의 일이었다. 그때 우리 부대에는 ‘심 상병’이란 인천 후배가 있었다. 지역만리에서 만난 고향 후배는 형제보다 반갑고

친근한 존재였다. 야간 초소 경계 근무를 서던 어느 날, 고향 인천의 후배가 ‘인천 짠물’이라며 푸대접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했다. 심 상병은 “사람들이 왜 인천 사람들을 ‘짠물’이라고 비하하느냐”는 질문을 내게 던졌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다 짠물인데 유독 인천 사람들만 두고 짠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난감했다. 심 상병은 파병 전부터 ‘인천 짠물’이라며 푸대접을 받은 기억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나 역시 왜 인천 짠물인지 잘 모르고 있던 터였다. 한참 고민하다가 불쑥 비류와 온조 설화가 떠올랐다.

기원전 18년 미추홀 인천의 시조인 비류가 “미추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히 살 수 없다”고 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짠물’이라는 말은 곧 인천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말일 뿐 구두쇠처럼 씹씹이가 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조했다. 짜다는 의미는 부패를 방지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지금 돌아보면 인천 짠물의 의미는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인천은 요충지여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당하며 피해 의식이 많았다. 이런 치열한 현장에서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짜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사람들이 바로 인천인이며 이것이 인천인의 정체성이고 인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이 아닌가 한다.

1980년대 인천항이 번창하면서 ‘인천 드림’을 실현할 요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 들었다. 부평, 주안 공단 조성과 함께 “인천에 가면 굶지 않고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여럿이 다 모여 잘사는 인구 300만의 인천은 포용의 도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성어 속에서 전국 8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우러져 살아왔고 이제 새터민과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며 세계적, 다국적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인천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포용의 도시다. 인천에 살면 모두가 인천 사람이고, 인천에 살지 않아도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여생을 인천 사랑에 쏟으며 살아가리라.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꼭 1년 전 겨울입니다. <굿모닝인천>에 가족사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시민도, 동네사진사도 가슴이 설렸습니다. 그렇게 열두 달이 지나고, 책 속엔 열두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열두 곳 동네 사진관의 소중한 꿈이 쌓였습니다. ‘인천사진관’, 그 1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열두 개의 추억을 선물해준 열두 곳의 동네 사진관

빠듯한 상황 속에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마주하는 낯선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내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셔터를 눌러준 열두 곳 동네 사진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사진관 코너를 통해 밝힌 소중한 꿈들이 꼭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턴, 우리 동네 사진관에 우리 동네 사람들의 가족사진이 주렁주렁 걸리면 좋겠습니다.

추억을 걸어드렸습니다



인천사진관에 걸린 첫 번째 추억

서구 울도리에 있는 단아한 이층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엄마 아빠의 좋은 구석만 빼닮은 세 아이가 집 안 가득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어댁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족입니다. 이재정, 신지숙 부부는 아이들 덕에 웃고 사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부부의 자녀 사랑은 집 안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거실 한쪽 전체가 아이들 사진으로도 배웠습니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온통 아이들입니다. 올해 <굿모닝인천>에 처음으로 걸렸던 가족사진도 눈에 띄입니다. “첫째 울아가 유치원 졸업할 때쯤 사진을 찍었는데, 벌써 둘째 수호도 입학 앞두고 있네요. 아이들이 한창 커가는 시기라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찍기만 하면 볼 일이 많이 없어 웬만하면 액자로 만들어두다 보니 집에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울아네에게도 인천사진관은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만 잔뜩 찍다 보니 정작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일은, 더욱이 액자까지 만들어 걸어두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가족사진... 어릴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엔 가족사진이 정말 귀했잖아요?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집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바쁜 일상이 걸림돌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요즘 다들 너무 여유 없이 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인천사진관은 단순히 독자들에게 가족사진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 머물렀지만 화려함에 가려 눈에 띄지 못했던 동네 사진관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인천사진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좋은 취지에 공감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어렸을 때 흔히 보던 그 풍경 기억하시죠? 동네 사진관 앞에 잔뜩 걸려 있던 가족사진과 돌 사진, 결혼사진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천사진관은 추억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CULTURE CALENDAR

DECEMBER 2019

12

이달의展

박진이, 치유적 풍경-休, 사랑
12월 3일(화)~12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용소현, 예하-흐르는 물처럼
12월 3일(화)~12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인천 개항과 포구 대축전
12월 6일(금)~12월 1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문인화작가회정기회원전
12월 6일(금)~1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2회 마우회 정기전
12월 6일(금)~1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2회 사진배틀회원 작품전
12월 13일(금)~1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회 Let's Go 출사여행사진전
12월 13일(금)~1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124전
12월 13일(금)~1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19 인천평생학습관 성인문해 시화전
12월 17일(화)~26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윤석애 개인전
12월 20일(금)~2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4회 푸른쪽빛 정기전
12월 20일(금)~2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2회 사진집단인 정기사진전
12월 20일(금)~2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명아트크루전
12월 27일(금)~1월 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박희자 개인전
12월 27일(금)~1월 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순자 개인전 '빛의 향연'
12월 27일(금)~1월 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04 제25회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원
☎ 032-810-8500

05 *수험생 할인 공연
인천시립합창단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무료
☎ 032-438-7773

06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클래식과 영화 음악'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러빙 시네마 - 씨네 뮤직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리조이스 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향해'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2313-6873

07 2019 에일리 콘서트-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12만1,000원, S석 11만원,
A석 9만9,000원
☎ 1566-6551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 - FINALE
송도컨벤시아 2홀
오후 7시
VIP석 14만3,000원, R석 12만1,000원,
S석 9만9,000원, A석 7만7,000원
☎ 02-542-4145

11 *수험생 할인 공연
얼리 윈터페스티벌 -
비보이 미디어 퍼포먼스
'Harmony of Light'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1만원
☎ 1588-2341



부평아트센터 뮤지컬 '헛스윙 밴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12월 11일~13일 오후 7시 30분
12월 14일 오후 3시
전석 3만원
☎ 032-500-2000

13 클래식시리즈 V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3시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수험생 할인 공연
얼리 윈터페스티벌 - 청소년 성장 드라마
'데미안'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1588-2341

14 12월의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수험생 할인 공연
얼리 윈터페스티벌 -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
'지브리 애니메이션
in Jazz'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1588-2341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청춘 콘서트
송도컨벤시아 1, 2홀
오후 7시
VIP석 12만1,000원, R석 11만원,
S석 9만9,000원, A석 8만8,000원
☎ 1544-1555

사랑방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15 Merry Harmony-mas!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원
☎ 010-9025-7384

17 스칼라 크리스마스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032-888-9911

18 2019 커피콘서트 X 로스 아미고스
'라틴 크리스마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7시 30분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19 설(雪)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 032-899-1517



20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A석 4만4,000원
☎ 070-8680-8477



스크루지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7,000원
☎ 032-505-5951

21 NEW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3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월 21일~22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6만원, S석 5만원
☎ 1688-6675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무적전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오후 6시
VIP석 16만5,000원,
R석 14만3,000원,
S석 12만1,000원,
A석 9만9,000원
☎ 02-333-9009



MFBTY & 플라이투더스카이
전국 투어 콘서트 'MOMENT'
인천남동체육관
오후 7시
VIP석 12만1,000원, R석 11만원,
S석 9만9,000원, A석 8만8,000원
☎ 1544-3901

24 연극 '이프온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2월 24일 오후 5시~8시
12월 25일 오후 2시~5시~8시
12월 26일~27일 오후 8시
12월 28일~29일 오후 2시~5시
전석 3만원
☎ 051-714-0802



26 2019 김연자 라이브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6시
VIP석 12만1,000원,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1544-6986

28 이은결 'THE ILLUSION'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월 28일 오후 3시~7시 30분
12월 29일 오후 1시~5시 30분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 상어의 바다 대모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2월 28일~29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66-6551



2019 나훈아 청춘 어게인
인천남동체육관
오후 3시~7시 30분
R석 16만5,000원, S석 14만3,000원,
A석 12만1,000원
☎ 1544-6399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 컬처데이

12월에는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 '지브리 애니메이션 in Jazz' 공연 티켓을 다섯 분께 2매씩 드립니다.

Good Morning Culture Day

<굿모닝인천>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0만 시민 여러분께 매월 문화를 선물합니다. <굿모닝인천> 모바일북 팝업 창으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월 다섯 분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 티켓 2매씩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1) <굿모닝인천>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에 접속한다.
2) 팝업 창을 클릭, 퀴즈 정답과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응모한다.
3)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다.
4)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월의 드라마

다시 또 1년을 돌아 12월에 닿았다. 문화적 측면에서 인천이 예년과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단연 아트센터 인천이다. 인천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준은 아트센터 인천 탄생 전과 후로 나뉜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 2018년 11월 그랜드 오픈한 아트센터 인천의 1년은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채우기에 충분했다. 연이은 명작 공연으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명품 공연장에서, 재미와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모차르트 모자이크

4월부터 진행된 시리즈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 숨겨진 모차르트의 음악, 그와 호흡한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앞선 네 차례 공연에서는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작품을 마에스트로 최수환의 지휘와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국내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연주로 선보였다. 12월 7일 마지막 공연은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전곡 모차르트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바이올린 협주곡 3번’ ‘교향곡 41번’ 등 모차르트의 대표적 명곡들로 감동을 선사한다.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의 해설도 곁들인다.

일시 12월 7일 오후 3시
 시간 120분
 가격 R석 2만원 / S석 1만5,000원
 문의 032-453-7700



나윤선 크리스마스 콘서트

10집 앨범 ‘Immersion’ 월드 투어로 유럽과 미주 공연을 마친 세계 최정상급 재즈 디바 나윤선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을 찾는다. 나윤선은 월드 투어 멤버이기도 한 기타와 피아노 연주자 토맥 미에르나우스키, 더블베이스와 드럼 연주자 레미 비놀로와 호흡을 맞춘다. 2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나윤선의 이번 공연은 오랫동안 그를 기다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유럽 최고 재즈 보컬리스트로도 자리매김한 나윤선은 독일의 그래미 어워드로 불리는 ‘에코 재즈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일시 12월 27일 오후 8시
 시간 100분
 가격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32-453-7700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아트센터 인천이 처음으로 콘서트 오페라 장르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라보엠’은 매년 12월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 가장 많이 오르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1830년대 파리 뒷골목,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파고든다. 공연은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 손’ 등 팬들의 큰 사랑을 받는 주인공 로돌포와 미미의 아리아뿐만 아니라, 두 주인공의 이중창,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명곡들로 가득 채워진다. 홍주영, 정호윤, 이호준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고의 성악가들이 연출하게 될 수준 높은 무대가 기대를 모은다.

일시 12월 13일 오후 8시 / 12월 14일 오후 5시
 시간 120분
 가격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32-453-7700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독일 뮌헨의 소리가 아트센터 인천에 울려 퍼진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이번 무대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지휘자 케빈 존 에두세이의 독보적 음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케빈 존 에두세이는 2013년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인 연주 활동을 펼쳤다. 탁월한 음악적 해석력과 연주력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과의 협연도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향과의 협연으로 음악계에 데뷔한 파비올라 김은 서울시향 역사상 최연소 협연자 기록을 보유한 신성이다.

일시 12월 8일 오후 5시
 시간 120분
 가격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의 02-3297-3387



IMAGE NEWS

‘인천 2030 미래 이음’ 선언!



#오직 시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시민에게 온전히 공유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1

세계 이음
세계와 이어진 기분이 튼튼한 도시



#도시의 기본 관광과 교통망 #안전망과 정보 공유 체계가 잘 순환하고 이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천

02

환경 이음
환경과 미래가 이어진 도시



#깨끗한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청정 대체 에너지 생태계 조성

03

경제 이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잇는 경제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융합 경제 시스템을 #인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진에 연계 #먼저 준비하는 인천, 10년 후, 확실한 미래!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는 지난 11월 22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FC 감독을 비롯해 11명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백령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인천에선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2,995명이 해당된다.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지난 11월 1일 착공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가 소통을 통한 민·관 합의로 해결됐다.

우리 시는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 타워가 될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시작됐다.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인천항에 차량 경매·검사·수리·세차·부품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규모 물류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우리 시가 ‘제6회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공공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성료



우리 시는 지난 11월 22일 시청에서 '다름의 동행, 협치로 잇다.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한 '협치로 잇는 마당(다름의 동행, 협치로 잇다)'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와 더불어 '2030 미래이음정책 대시민 보고' 등을 진행했다.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의 기초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인천의 지향점을 제시하겠다는 기획 의도다. 또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 시민주권선언 기념비 제막식, 인천앓들 개장 기념 식수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축하 문화 공연과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시는 이번 협치 콘퍼런스를 계기로 시민 행정 참여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자율적 공론의 장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시 공동체협치담당관 032-440-8713

인천시 인터넷 신문 'i-View' 굿콘텐츠 인증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인터넷 신문 'i-View'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온라인사이트 굿콘텐츠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 서비스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평가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i-View'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매체를 목표로 2005년 창간됐으며, 매주 2회(화목요일) 인천시 주요 소식, 관광, 역사, 문화, 인천 사람들 이야기 등을 뉴스레터 형태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2

송도에 2022년까지 청소년수련관·도서관 건립

송도국제도시에 최신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들어선다. 지난 11월 5일 송도국제도시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도동 313-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000㎡)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 카페테리아, 멀티미디어실, 스튜디오, 밴드 연습실 등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또 송도동 115-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8,000㎡) 규모 도서관도 건립될 예정이다.

연수구 032-749-6752

소방공무원 내년에 국가직 전환



지방공무원이던 소방공무원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소방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 따른 것이다. 인천에선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2,995명이 해당된다.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된다.

인천소방본부 032-870-3010

인천항에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인천항에 차량 경매·검사·수리·세차·부품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규모 물류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1월 2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은 모두 29만9,35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7,832대보다 31.3% 증가했다.

인천항만공사 032-890-8215

인천 동구 연료전지 건립 전격 민·관 합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가 소통을 통한 민·관 합의로 해결됐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주)회의)'를 개최해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발전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천연료전지가 계획된 발전시설 외에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을 하지 않고,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시와 동구, 인천연료전지, 주민 등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운영안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8

주거취약계층 775명에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 시는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동사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노숙인 156명, 노숙인 시설 5곳 329명, 쪽방생활자 214가구 290명 등 총 775명에 대해 맞춤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시설 입소와 응급장 자리를 제공하고 긴급생계·주거지원에 나선다. 특히, 쪽방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전기설비 안전점검,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를 추진하고 시립 인천의료원, 일선 보건소, 119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시 자활증진과 032-440-1548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원안대로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19일 송도국제도시 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대해 연세대 측과 기존에 협의한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청은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토지공급 예약'을 연내에 체결하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심의를 거쳐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한 뒤 8월에 대학 측과 정식 토지매매 계약을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33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첫 삽’ 뚫다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지난 11월 1일 첫 삽을 뚫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1만 9,000㎡ 터에 건축 연면적 1만5,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하는 문자박물관은 2021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08억원 규모다. 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해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고, 문자를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술 ‘팔만대장경’을 발명한 곳이다.
시 문화시설과 032-458-7252

‘사랑의 온도탑’ 제막, 뚝뚝 오르길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 11월 20일 부평역광장에 세워졌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목표 모금액은 76억9,000만원으로 7,69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기부 희망자는 관공서와 은행 등에 마련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모금하거나 ARS 전화(060-700-1210, 1통화 3,000원)로 참여하면 된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2-456-3333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백령치매안심센터’ 개소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백령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웅진군은 지난 11월 21일 4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령면 북포리 522-6에 연면적 224㎡, 지상 2층 규모의 백령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치매 환자 쉼터, 가족 카페, 상담실 등을 갖춘 이 센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웅진군은 주민들이 이 센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웅진군청 032-899-2872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획득

우리 시는 지난 11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해 진행해온 기존의 방식과 병행, 시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032-440-4312

유상철 감독 등 11명 인천 홍보대사 위촉

우리 시는 지난 11월 22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FC 감독을 비롯해 11명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일반 시민 7명, 방송·연예 분야 2명, 문화·예술 분야 1명, 체육 분야 1명 등으로 그간 연예인 위주의 홍보대사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반영, 일반 시민을 대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일반 시민 홍보대사로는 인천 출신, 인천 거주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연령과 활동 분야, 모범선행 시민, 시 정책홍보에 기여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선정됐다.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3044

‘제1회 인천 MICE Fiesta 2019’ 개최

우리 시는 지난 11월 2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 마이스 피에스타 2019’를 개최했다. 마이스 관련 기업인, 교수,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선 인천 관광·마이스 싱크탱크의 첫 출범식인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 창립 회의’, 인천 마이스 정책 담론의 장이 될 ‘마이스 인천 포럼’ ‘마이스 청년 창업 공모작’ 전시와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마이스인의 밤’ 행사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마이스 사업 성과 보고, 인천 마이스 유공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의 기념식이 진행됐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40-1507



‘청라시티타워’ 착공...2023년 완공

높이 448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 타워가 될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청라호수공원에서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청라시티타워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 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 시설로 건설된다. 청라시티타워가 완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중국 광저우의 캔톤타워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 타워로 기록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12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 재생 ‘본격 시동’

우리 시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2년간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76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로 857호에 달했고, 중구 672호, 부평구 661호, 동구 569호, 서구 42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연말까지 자치구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164억5,000만 원을 들여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88



268명 대상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우리 시가 오는 12월까지 노인 268명과 경륜전수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은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68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월 30시간 공익활동을 하게 된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지자체 최초 수상

우리 시가 ‘제6회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공공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행정 혁신의 기본 원리로 정한 민선 7기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데이터 행정 분야에서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시 데이터혁신담당관 032-440-2308

COUNCIL NEWS

시도의회의장협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에서 채택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 공동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름으로 환경부에 전달된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초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10월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각각 가결한 바 있다.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이카이가 앤더슨(Ikaika Anderson) 의장을 대표로 하는 총 7명의 대표단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를 방문했다. 이번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자매우호도시로서 양도시 의회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대표단은 강화 평화전망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IFEZ 홍보센터,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11월 18일에는 인천시의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카이가 앤더슨 의장은 “인천시의회에 깊은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의 상호이해 및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기획행정위, ‘119원의 기적’ 기부 동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인천시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부 프로젝트인 ‘119원의 기적’ 기부에 동참했다.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하루 119원씩 하나 된 마음! 구조가 필요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라는 취지로 인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이 긴급출동 및 화재진압 등으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화재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300만 인천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족 문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마련한 육아정책 로드맵을 점검하고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는 “내년부터 보육정책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예정이고, 인천에서도 아이사랑꿈터 사업 등 혁신적인 육아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현장 적용의 실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서해 평화호’ 사업 추진 현장 답사

강화도 한강 하구 일대 중립 수역에 ‘서해 평화호’를 띄우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전문가가 지난 11월 12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인천시의회 소속 정책연구모임인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화도 외포항 일원에서 한강 하구 중립 수역 항로 개설을 위한 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남북교류 연구회는 최근 시민들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인천YMCA, 우수 시의원 10명 선정

인천시의회는 안병배 부의장을 비롯해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 강원모 의원, 김성준 의원, 민경서 의원, 서정호 의원, 손민호 의원, 신은호 의원, 윤재상 의원, 조선희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이 인천YMCA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천YMCA는 인천YMCA시민사업위원회와 의정참여단 공동으로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중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해 의원 출석률, 시정 질의, 조례발의 수, 조례 내용, 회의록 분석, 지역 시민사회 의견, 언론계 의견 등을 평가 자료로 총 10명의 시의원을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인천시의회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올해 마지막 회기 기념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시민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기간 11월 18일(월)~12월 13일(금)
 응모 방법 인천광역시의회 유튜브 구독 후 댓글 / 이미 구독자라면 댓글만 남겨주세요~

youtube.com/c/인천광역시의회

당첨 팁 소소한 인터뷰에 댓글, 좋아요 남기면 당첨 확률 UP!
 인천 시민이면 당첨 확률 UP! UP! (댓글에 ‘인천 시민’을 남겨주세요)
 경품 아웃백스테이크 5만원 식사권(2명), 문화상품권 2만원(5명), 맘스터치 햄버거 세트(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20명)
 당첨자 발표 12월 20일(금)
 문의 032-440-6137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www.icounc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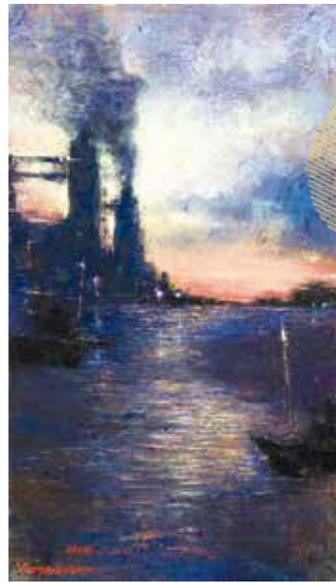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Made in Incheon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작가의 말

포구의 노을은 영원하리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마음의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곳, 고깃배가 들어올 때면
사람들로 북적여 가슴 설레던 곳, 나그네에겐 노을 담긴 한 잔 술로 이별의 여운을 달래주는 곳, 진
한 바다 내음과 정취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곳. 나에게 있어 고향 인천을 다시금 마주하게 한 곳이
자 작업의 정체성을 찾게 해준 곳, 먼 길을 돌고 돌아 늙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잊고 있던 나를
되찾은 그곳. 북성포구여, 아름답게 타오르는 붉은 노을 머금은 채,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주길...



북성포구 - 노을
35x60cm oil on canvas 2012년 작



<굿모닝인천> 11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

박승희 계양구 주부토로



박수진 동구 화수로



홍정아 남동구 담방로



정해영 경기도 남양주시



조은정 서구 비지니스로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1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 달의 드로잉
고제민 작가

개인전 15회 등 폭넓은 전시 활동을 펼쳤다. 인천의 소멸되고 남은 흔적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향수, 새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에서 정체성과 희망을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엄마가 된 바다> <인천 담다> 등을 펴냈으며, 인터넷 신문 '인천 in'에 인천의 오래되고 낡은 골목길을 주제로 작품을 연재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깨끗한 정치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소중한 정치 후원금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기부하시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정치 후원금 : 특정한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후원 방법 :

*㉠ www.give.go.kr(정치후원금센터)

*폰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

참조 : ㉡ ic.nec.go.kr/ic/main/main.do(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정치후원금센터 ㉠ 02-503-1114

02 배움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인천서부여성회관에서 2020년 제1기 사회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도전과 함께하세요.

신청 기간 : 12월 23일~31일

교육 기간 : 2020년 1월 2일~3월 18일(11주 과정)

교육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전체 20% 남성 수강 가능(일부 강좌 제외)

수강료 : 3만6,000~6만원(교재·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wiw(선착순)

개설 과목 : 바리스타 2급, 쇼핑물 창업, 탄탄 일본어 회화, 캘리그래피, 댄스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75개 강좌

문의 : 인천서부여성회관 ㉠ 032-458-7360

03 스크린에 담긴 미추홀 보러 오세요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2019 미추홀 마을 영화 : 미추홀에서 살아가다'를 상영합니다. 청년들의 눈에 미친 미추홀구의 모습, 함께 감상해요.

일시 : 12월 16일 오후 4시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대상 : 누구나

비용 : 무료

내용 : 미추홀에서 가업을 이어가는 '일' 벌린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업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시선으로 본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032-866-3994

04 '안심in' 다운로드하고 안심하세요!



인천 시민 행복 지킴이 '안심in' 앱을 다운로드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요 : 12월 2일부터 '안심in' 서비스 10개 군·구 확대 서비스 시행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안심 귀가 서비스 : 귀가 중 긴급 도움 요청 시 CCTV 관제 센터로 위치 정보 전송 및 위급 상황 신고

*이탈 방지 서비스 : 지정된 활동 반경 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위치 정보 표시 서비스 : 등록된 지인에게 사용자 위치 정보 표시

*생활 안전 정보 제공 : 미세먼지, 비상벨 및 CCTV 위치 등 제공

다운로드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IOS 애플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심in'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문의 : 시 안전정책과 032-440-5745

05 새 삶에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천여성복지관에서 2020년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목 : 기능사(미용, 양재, 도배, 조리, 제과제빵), 특강 등 84개 강좌

교육 기간 : 2020년 1월 6일~3월 21일(3개월 과정)

접수 기간

*전문·실용 창업 과정 :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문화 아카데미·특강 :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 우선 모집 : 12월 20일~23일 방문 접수

접수 방법 : ㉠ women-center.incheon.go.kr(선착순)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 032-440-6540, 6550



06 구인과 구직의 오작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모두 도움 되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구직자, 구인 업체

이용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신청

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인천센터

참고 : ㉠ www.cwma.or.kr/cid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인천센터

㉠ 032-654-1829



07 방통대 23개학과 신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개 학과에서 2020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 모집 인원, 지원 자격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집 기간 : 12월 2일~2020년 1월 8일

모집 내용 : 국어국문학과 등 23개 학과 신입생 및 편입생

참조 : ㉠ www.knou.ac.kr

문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577-2853

08 꿈꾸는 청년의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포스코건설과 인하대학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스코건설 & 인하대학교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기간 : 11월~2020년 3월

참가 대상 : 팀 단위 응모

*건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인천 지역 거주 혹은 재학 중인 청년(팀 멤버 중 1명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 내용 : 멘토링, 최종 선발팀 시제품 개발비, 창업 공간 제공

참가 방법 : ㉠ www.poscoenc.com(포스코건설),

㉡ startup.inha.ac.kr(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문의 :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 032-860-9149

09 나무 향 가득한 색다른 체험을 즐기세요

나무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12월 프로그램을 예약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약 일시 :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체험일 2일 전까지 예약 가능)

예약 방법 : ④ www.incheon.go.kr(회원 가입 후 신청)

운영 내용

*은행나무공방 : 초등학생~성인, 1회 90분 수업,

체험료 2,000원+재료비(실비)

*느티나무공방 : 4세~7세, 1회 60분 수업,

체험료 1,000원+재료비(실비)

*구름나무놀이터 : 36개월~6세, 1회 90분, 체험료 2,000원

운영 방식 : 평일은 단체 위주, 주말은 개인 및 가족 단위 운영

현장 접수 : 각 실별 회당 5명(주말), 정원 미달 시 현장 접수 가능(평일)

문의 : 인천대공원사업소 ① 032-440-5888



10 문화누리카드, 슬로건과 영상 공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 브랜드 이미지 대국민 확산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대학생 슬로건&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 : 12월 8일까지

공모 주제 : 문화누리카드 관련 자유 주제

분야	주제	규격
슬로건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문화누리카드의 매력	띄어쓰기 포함 25자 내외
영상	만약 나에게 문화누리카드가 주어진다면?	30초~1분 내외 (휴대폰 촬영 영상 가능)

응모 자격 : 전국 대학생 누구나(상세 응모 자격 공모 요강 참고)

응모 방법 : ⑤ mnurient@gmail.com

문의 : 운영사무국 ① 02-417-6123

BOOK INFO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일제강점기를 거쳐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인천은 숨 가쁘게 역사의 주요한 현장으로 자리해 왔다. 개항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천에서 펼쳐진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변화의 물결은 인천의 도시 공간 곳곳에 남아 오늘의 인천을 형성하는 질료가 되었고, 인천다운 미래를 설계할 소중한 자양분으로 발효할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인천

지은이 이희환
322쪽 16,500원
퍼낸 곳 21세기북스

<인천>은 21세기북스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의 제 2권이다. 이 책의 저자 이희환 제물포구락부 관장은 1966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 품을 대신해 밭게 된 인천. 그때부터 인천에서의 삶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책은 '차이나타운' '부평문화의거리'처럼 인천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는 물론이고 '대불호텔' '북성포구' '주안염전'과 같이 인천이 고향이라 할지라도 낯설 수 있는 오래된 장소들에 대해 애정을 담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선정한 36 꼭지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 그 속에 숨겨진 인천의 이야기를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미 익숙한 이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게 할 것이며 인천이 낯선 이들에게 인천을 알리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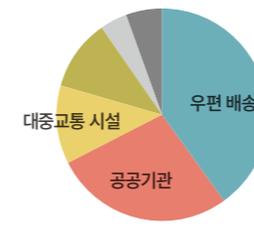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⑤ incheon-librairie@naver.com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정성 담아 꼭꼭 눌러쓴 엽서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열어보며 큰 관심과 사랑을 새겼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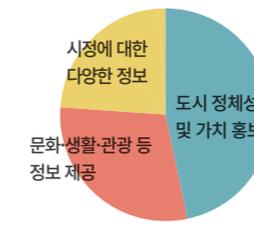
조사 대상 <굿모닝인천> 독자 및 인천 시민 | 참여자 수 1,057명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 | 조사 기간 2019년 1월 호~11월 호

Q1 <굿모닝인천>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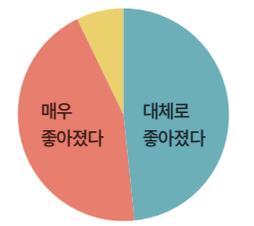
- 우편 배송 40.2%
 - 공공기관 27.5%
 - 대중교통 시설 11.9%
 - 교육 기관 10.8%
 - 온라인 매체 4.3%
 - 기타 5.3%
- *<굿모닝인천>을 접한 경로는 우편 배송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27.5%) 및 교육 기관(10.8%)을 통해 주로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2 <굿모닝인천> 매체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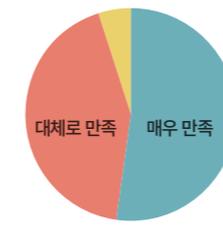
-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46.4%
 - 문화·생활·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29.3%
 - 시민 대상 시 정책, 시정 활동, 성과 공유 매체 24.3%
- *모든 성별과 연령별 응답자가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매체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Q3 인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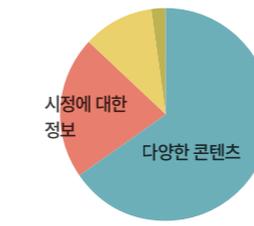
- 대체로 좋아졌다 48.6%
 - 매우 좋아졌다 44.3%
 - 특별한 변화가 없다 7.1%
-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10명 중 9.3명이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40대 이상의 인식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1 <굿모닝인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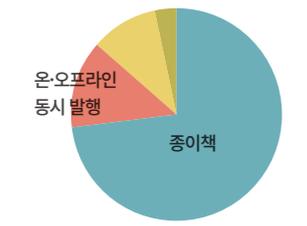
- 매우 만족한다 52.3%
 - 대체로 만족한다 42.9%
 - 보통이다 4.6%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2%
- *응답자의 10명 중 9.5명이 <굿모닝인천>에 만족했습니다. 이 중 5.2명은 매우 만족했으며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에서는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2 만족하는 이유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65.4%
 -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21.7%
 -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10.7%
 - 기타 2.2%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굿모닝인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30대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선호하고, 40~50대는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5 발행 형태 선호도



- 종이책으로 발행하는 오프라인 형태 73.1%
 -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동시 발행 13.5%
 - e-북 또는 웹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형태 10.1%
 -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되, 오프라인 동시 발행 3.3%
- *응답자의 73.1%가 e-북이나 웹진보다는 종이책으로 발행되는 것을 선호했으며, 13.5%는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동시 발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추가·보강됐으면 하는 내용

- 인천의 유물 취재 및 홍보
- 인천의 박물관 소개와 홍보
- 인천 섬 연재 기획
- 건강 상식과 노인 일자리

- 깊이 있는 문화 행사 정보
- 잘 알려지지 않은 인천 인물 소개
- 박람회 개최 정보 및 후기
- 책 크기와 글자 크기 확대

굿모닝인천 2019

INCHEON MONTHLY MAGAZINE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2020년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01 JANUARY

COVER STORY
래퍼 '비와이'의 작업실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송도국제도시 새해 소망 황금돼지해 시민 메시지 사람과 공간 ① 래퍼 '비와이'의 작업실 키워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책 INFO 2019년 인천 예산 사일로 기네스북 등재 세계 기록을 만든 사람들 살고 싶은 도시 ① 오스트리아 빈 시민 시장 민선 7기 시장 슬로건 창안자 김소영 모바일 소통 인천시 애플리케이션 평화, 새로운 미래 서해평화 사진전 내가 사랑하는 인천 사진가 최병관 문화 포커스 인천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이미지 뉴스 시민안전보험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눈꽃마을 인천의 아침 새해, '남북평화의 파시'를 기다리며 인천사진관 이재정·신지숙 독자님 가족

02 FEBRUARY

COVER STORY
문병식 현악 공방



같은 하늘 다른 시간 동인천역 미디어&스토리 시선을 사로잡는 3S 홍보 마케팅 인천 개항 136주년 개항의 창(窓) 사람과 공간 ② 문병식 현악 공방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인항파출소 인천의 맛 전통주 우리 이웃 기사식당 이야기 테이스티 로드 기사식당 탐미록 살고 싶은 도시 ② 캐나다 토론토 내가 사랑하는 인천 백령도를 그리다 시민 시장 국가대표 소상공인 김은경 문화 포커스 인천도시역사관 기획특별전 이미지 뉴스 '인천e음'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부평도호부청사 仁포그래픽 일자리 정책 로드맵 인천의 아침 개항 136주년, 인천항의 미래 인천사진관 정미란 독자님 가족

03 MARCH

COVER STORY
21세기 독립운동가 이호준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인천내항 미디어&스토리 '극한직업' 흥행에 대한 공감 이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그 중심에 인천/인천 여성 독립 운동가/강화 3·1 독립만세운동/인천 항일 독립운동 사람과 공간 ③ 21세기 독립운동가 이호준 살고 싶은 도시 ③ 호주 시드니 당신이 잠든 사이에 꽃 시장 24시 시네마 인천 영화 '극한직업' 촬영 후기 내가 사랑하는 인천 흥선옹 판화가 문화 포커스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시민 시장 독립유공자 후손 전경선 문화 행사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 행사 仁포그래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미지 뉴스 재정 역량 1위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인천 만세운동 발상지 창영초등학교 인천의 아침 3·1절 100주년, 다시 부르는 인천의 산하 인천사진관 김한주 독자님 가족

04 APRIL

COVER STORY
1인 크리에이터 '실버렌'의 작업실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미디어&스토리 발 없는 말이 만 리 간다 화보 봄의 빛과 색(色) 사람과 공간 ④ 1인 크리에이터 '실버렌'의 작업실 건강한 생활 미세먼지 이겨내기 세계 속의 인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살고 싶은 도시 ④ 덴마크 코펜하겐 시민 출사 인천 봄꽃놀이 내가 사랑하는 인천 박혁남 서예가, 캘리그라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오늘의 자유공원 시민 시장 인천장애인체육회 김윤호 문화 포커스 동아시아 문화 도시 2019 인천 仁포그래픽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이미지 뉴스 닥타카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강화 고려산 인천의 아침 죽산 조봉암과 '인천 정신' 인천사진관 김승희·김윤화·김용희 독자님 가족

05 MAY

COVER STORY
전등사 '비움의 공간'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수봉공원 미디어&스토리 영화 관람 문화를 바꾼 쿠키 영상 포토 에세이 오월의 산사 사람과 공간 ⑤ 전등사 '비움의 공간' 화보 오월 풍경 인천의 미래 인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부평우체국 물류센터 살고 싶은 도시 ⑤ 일본 오사카 오월의 맛 산사의 밥상 시민 시장 강화도 농민 심상점 내가 사랑하는 인천 길길남 조각가 문화 포커스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전 문화 공연 5월 어린이날 행사 이미지 뉴스 해안 철책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의 아침 한국 영화 상영 100주년과 인천 인천사진관 오용하 독자님 가족

06 JUNE

COVER STORY
인천 항만 컨테이너 작업장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월미도 미디어&스토리 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하는 OECD 사람과 공간 ⑥ 인천 항만 컨테이너 작업장 르포 인천 모항(母港) 크루즈 여행 무의도 당일 섬 여행 발상 통일 인천에서 찾은 이북 음식 살고 싶은 도시 ⑥ 브라질库里치바 안전 인천 헬프미 서비스 시민 시장 도시재생마을 주민 김기수 내가 사랑하는 인천 건축가 황순우 문화 공연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전시 생활 TIP 인천e음 카드 알짜 사용 TIP 인천 관광 상품 등대를 사랑하는 물범 친구들 이미지 뉴스 워크온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청라호수공원 레이크 하우스 인천의 아침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평화수도'로 인천사진관 김아름 독자님 가족

07 JULY

COVER STORY
자유공원 서핑 가게 '서프코드'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연안부두 미디어&스토리 오감스토리, 오감 도시 브랜드 포토 에세이 인천 섬, 바다 여름엔 인천 섬 해수욕장 가이드 함께 인천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시장 속 시민 이야기 도약하는 인천 시민 SNS 시민이 본 1년 시장 사람과 공간 ⑦ 자유공원 서핑 가게 '서프코드' 살고 싶은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민 시장 연수구 환경미화원 윤지영 내가 사랑하는 인천 시민 김영승 문화 포커스 인천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이미지 뉴스 수돗물 사태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왕산마리나 인천의 아침 인천, 세계 활자의 시대를 열다 인천사진관 이해현 독자님 가족

08 AUGUST

COVER STORY
월미도 원 테이블 식당 '디 모니카'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송도해수욕장 미디어&스토리 인천만의 도시 매력 더하기 인천 섬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해양 레저 체험 왕산마리나 인천 여행 월미바다열차 사람과 공간 ⑧ 월미도 원 테이블 식당 '디 모니카' '핫'한 인천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 살고 싶은 도시 ⑧ 호주 멜버른 내가 사랑하는 인천 백령초 교수 시민 시장 을왕리 시민수상구조대원 김영란 인천은 지금 축제 중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송도맥주축제 이미지 뉴스 주민 참여 예산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천의 아침 굴 파던 소년들을 기리며 인천사진관 박은주 독자님 가족

09 SEPTEMBER

COVER STORY
배다리 주택 '오봇'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인천역 미디어&스토리 눈에 확 띄는 홍보 콘텐츠 전략 소통 인천 인천의 다리 인천의 맛 ① 강화갯벌장어 가을 라이딩 강화나들길 가을 산책 인천가족공원 사람과 공간 ⑨ 배다리 주택 '오봇' 당신이 잠든 사이에 성광떡방 살고 싶은 도시 ⑨ 잉글랜드 맨체스터 내가 사랑하는 인천 시민 조우성 시민 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신준상 대원 이미지 뉴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파크 인천의 아침 한국 철도 120주년, 시발지 인천 인천사진관 박재은 독자님 가족

10 OCTOBER

COVER STORY
추억극장 '미림'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첫 개항, 능허대 미디어&스토리 온라인 콘텐츠 환경오염을 막자 인천의 맛 ② 남동배 사람과 공간 ⑩ 추억극장 미림 백스테이지 무대 뒤의 사람들 교통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 시민 소통 공간 인천애(애)들 살고 싶은 도시 ⑩ 독일 뮌헨 그레이트 인천 인천대교 10년 내가 사랑하는 인천 조각가 고정수 시민 시장 아름다운동행인천 자원봉사자 강병인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오버 드라이브 이미지 뉴스 인천 2030 미래 이름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짜장면박물관 - 화가 김재열 인천의 아침 시월의 어느 멋진 '인천 시민의 날'에 인천사진관 홍혜림 독자님 가족

11 NOVEMBER

COVER STORY
인일철공소 철공 장인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소래염전 미디어&스토리 PPT 프리 시대가 주는 시사점 사람과 공간 ⑪ 인일철공소 인천의 맛 ③ 송림동 '닭알탕' 원도심 재생 공간 개항로 핫 플레이스 두뽕두뽕 개항로 즐기기 공감 인천 '동구-중구 연결도로' 민간 협의 계양산성 둘레길 탐방 시민 출사 가을 풍경 살고 싶은 도시 ⑪ 싱가포르 내가 사랑하는 인천 작가 양진채 시민 시장 월미도 상인 염정숙 이미지 뉴스 인천애(애)들 시장 뉴스/의정 뉴스 드로잉 인천 수인선 협궤열차 - 교운 작가 인천의 아침 배다리 인천사진관 안현주 독자님 가족

인천과 하와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2011)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공작의 깃털처럼 사방으로 잎을 뻗친 야자수, 수억만 와트의 태양 광선이 드리워진 에메랄드의 바다. 2011년 가을에 찾은 하와이 호놀룰루는 문명이 닿지 않은 ‘시원(始原)의 세계’처럼 보였다. ‘스타 오브 호놀룰루(STAR OF HONOLULU)’란 브랜드가 선명한 고층 유람선이 눈에 들어왔다. ‘갤릭(Gaelic)’호가 오버랩됐다. 한 세기 전 우리나라 최초 이민자들을 싣고 태평양을 건넜던 배.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 시커먼 표정의 사람들이 ‘겐카이마루(玄海丸)’호에 올랐다. 남녀, 어린이 121명의 얼굴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대한제국의 운명을 닮아 있었다.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 많이 눈에 띈 것은 존스 목사가 하와이 이민을 설득했던 탓이었다. 일본 고베에 도착해 신체검사를 통과한 102명만이 갤릭호에 몸을 실었다. 84%가 인천 사람이었다. 배가 호놀룰루에 닿은 때는 3주 만인 1903년 1월 13일이었다. 그렇게 하와이 이민자의 삶이 시작됐다. 당시 이민은 굶주림과 쇠락하는 나라에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건만 하와이엔 또 다른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우리 같은 ‘농막’에서 숙식하며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이민자의 삶은 처참했다. 채찍을 휘두르는 루나(십장)와 살갓을 벗겨낼 듯한 퇴약별은 중노동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끝이 안 보이는 사탕수수·파인애플 농장 뒤로 출렁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민자들은 생각했다. 저 바다 너머에 내 고향이 있건만... 온종일 일해서 번 50센트에서 1달러 25센트의 돈은 저축하거나 고국으로 보냈다.

이민자의 상당수는 노총각이었다. 조선 여자를 데려와야 했다. 사진혼인법이 제정되면서 ‘사진신부’란 말이 생겨났다. 이민자들이 보낸 예비 신랑의 사진을 보고,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따금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에선 분명 청년이었는데 만나 보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나타나기 일쑤였던 것이다. 1910~1924년 울며불며 결혼한 사진신부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사진신부들은 훗날 한인 사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과 함께 외교권을 상실하며 하와이 이민은 중단된다. 그때까지 32개 농장에서 일하던 4,900여 명의 한인들이 2011년 취재 당시엔 4만5,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와이 이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이민 1세대의 독립운동과 인천에서의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이다. 우남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 장군은 노선이 달랐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54년 설립된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학교) 교명이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하와이 이민과 인천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와이 이민 117주년인 12월 22일엔 월미도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찾아야겠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정년퇴직했습니다. 올해는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지 꼭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들어있던 가족은 넷이 됐고, 넷은 또 아홉이 되어 다복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멀리 창원으로 시집간 딸네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이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저와 아내를 격려하고, 열심히 달려갈 자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사진 속에 새긴 오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보, 고생했소. 애들아, 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철성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수변길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방송국 PD로 일하다 꿈을 좇아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잠재력을 담은 젊은이의 가능성이 물길처럼 흐르고 흘러, 꼭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위치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2 102호 문의 032-561-6901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